

輕動詞 ‘하다’의 두 가지 보어*

- ‘하다’-語根句와 ‘하다’-名詞句 -

김창섭**

I. 머리말

필자는 졸고 2001a에서 경동사 ‘하다’가 만드는 ‘X하다’와 ‘X를 하다’에서 ‘하다’의 보어 X가 각각 ‘語根句’와 ‘名詞句’에 관할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하다’-語根句와 ‘하다’-名詞句의 문법적 특징들을 찾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졸고 2001a의 ‘하다’-어근구 설정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의 차이를 보여 주는 문법 현상들을 추가로 제시하고 ‘하다’-어근구의 개념을 더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하다’-명사구가 명사구의 한 하위 부류로서 다른 일반적인 명사구와 구조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졸고 2001a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깨끗]하다', '[重要]하다', '[설명]하다', '[비가 올 듯]하다' 등은 동일한 'X+하' 구성으로서 문법적으로 동일한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하'는 동일한 하나의 동사이고, 'X'들은 동일한 句的範疇에 관할된다고 본다. '[착]하다'처럼 'X'가 일음절일 때는 하나의 句로서의 독자적 행동에 제약이 있으

* 이 연구는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본과 교수.

나, 그것은 다른 구성에도 존재하는 1音節 制約에 기인한 것이므로 1음절의 'X'도 2음절 이상의 'X'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착', '깨끗'은 語根이며, '설명'은 名詞, '비가 올 듯'은 어근적 성격의 구인데 이를 모두를 관할하는 범주로 '語根句'를 새로 설정한다. '하다'는 제한된 통사론적 행동을 하지만 어근구에 접미하여, 형태론적으로 접미사적인 작용을 하므로 접미사적인 動詞(接尾輕動詞)라고 본다.¹⁾

2. 어근구와 접미경동사 '하'가 결합하여 된 句는 일반 동사구와 달리 또 한 단일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를 위해 범주 V[^]를 새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문법을 설명하'의 구조구조는 다음 (1)과 같이 된다.

(1) [[문법]N]_{NP}을 [[[설명]N]_{RP} [하]V_{I+SUFFIX}]V[^]]VP²⁾

3. '문법(에 대해, 은, 도, 만) 설명을 하', 그리고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 '문법 설명을 하' 등의 '설명을 하'의 구조는 다음 (2)와 같이 된다.

(2) [[설명]N]_{NP}을 [[e=[설명]N]_{RP} [하]V_{I+SUFFIX}]V[^]]VP

여기에서 '[e=[설명]N]_{RP}'은 音聲으로 실현되지 않는 空範疇이다. 부연하자면 '... 설명을 (설명)하다'에서 괄호 속의 '설명'은 複寫 投影해 온 의미('投影意味')만 가지고 형식은 가지지 못한 것이다. (접미경동사 '하다'와 그의 공범주 보어를 합해서 他動輕動詞라고³⁾ 부르기로 한다. '[X]NP'는 이 타동경동

1) 이 '하다'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논항 구조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輕動詞이다. 문장의 논항구조는 그의 보어인 어근구의 性이 결정한다.

2) '[설명]N_{RP}'은 원래 출고 2001a에서는 '[설명]N_{LP}'이었던 것을 바꾼 것이다. 출고 2001a에서는 '설명'이 어휘부에 명사 겸 어근의 이중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어근으로서 어근구를 만들고, 명사로서 명사구를 만든다고 보았던 것을 본고에서는 '설명'은 명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명사로서 어근구도 만들고 명사구도 만든다고 본다. (2)의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본고 4장 참고.

3) 출고 2001a에서는 투영의미를 가진 '하'를 특별히 경동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사 '하다'의 보어이다.)

4. 동사들은 의미상 行爲동사, 作用동사, 關係동사, 狀態동사로 대별된다. 본고에서는 '행위', '작용', '관계', '상태'를 통틀어 '事態'라고⁴⁾ 부른다. 'X'가 명사로서 [+행위]이거나 [+작용]의 의미일 때에 한해 'X'는 위 (1)의 'X하'와 (2)의 'X(를) 하'의 두 구조를 가질 수 있다. 'X'가 [+관계]나 [+상태]의 의미일 때는 (1)의 'X하' 구조만을 가지게 된다.

II. '하다'-語根句의 非名詞句的 성격

줄고 2001a에서는 'X하다'가 語彙 범주 V⁰가 아니라 '어근구+접미경동사'의 두 단어로 된 句 범주 V[^]라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V[^]가 '명사구+타 동경동사'의 VP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 작업은 'X를 하다'의 'X'는 명사구이지만, 'X하다'의 'X'는 명사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어근'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정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어근'에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정의가 있다. 각각에 번호를 붙여 구별한다면, 어근1은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고, 어근2는 '다른 곳에서 단어나 용언의 어간으로 쓰일 수 없는,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 중심부'이며,⁵⁾ 어근3

'하다' 역시 고유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논항구조도 결정하지 않는다. 문장의 논항 구조는 '하다'의 보어인 명사구의 사태명사가 결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하다'도 경동사라고 본다.

4) 본고의 '事態名詞'는 줄고 2001a에서 '敍述性 名詞'라고 불렀던 것이다. 홍재성 1993을 비롯한 많은 논저에서는 이것을 '述語 명사'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이 부류의 명사들이 여러가지 경동사(혹은 기능동사)와 함께 복합적인 서술어를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다른 서술어의 논항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예. '술도 좋고 공부도 좋다'의 '공부') 사태명사라는 용어를 택하기로 한다. 이로써 '사람', '음식'과 같은 非事態名詞가 '__이다'나 '__답다'의 밑줄친 곳 같은 '서술어' 위치에 왔을 때 '술어'로 쓰인 명사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본고에서는 경동사 '하다'의 보어구를 'X'로 표시하기로 한다. 또 사태명사와 사태어근을 구별하지 않고 아울러 부를 때 '事態의 X'라고 하기로 한다.

은 어근2의 정의에서 단서 부분이 빠진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 중심부’이다. 졸고 2001a와 본고에서는 외부적으로는 單語的이고 내부적으로는 句的인 V^를 새로 설정하고, 이 V^의 의미 중심부에 오는 ‘착’, ‘깨끗’ 등도 ‘어근’이라고 부른다.

이제 ‘X하다’의 ‘X’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다음 (3)에서 (b)의 ‘설명을’을 ‘하다’의 목적어로 보고, (a)의 ‘설명’은 거기에서 조사 ‘을’이 생략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임홍빈 1979가 제안되었다.

- (3) a. 철수가 문법을 설명한다.
- b. 철수가 문법을 설명을 한다.
- (4) a. 철수가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 b. 철수가 문법 설명을 한다.

임 1979는 (3a)의 ‘설명’이 단어 내 성분인 어근3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것이 독립된 명사구로서의 목적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주어진 문장구조를 유지하는 조건 아래에서 (3a,b)의 ‘설명’은 관형 수식을 받지 못하고, ‘하다’는 독자적으로 부사 수식을 받지 못한다. 또 ‘설명’이 관계절을 만들기 위해 생략되지도 못한다.⁶⁾ 반면에 (4a,b)에서는 그 과정들이 모두 가능하다.⁷⁾ 임 1979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3a,b)의 ‘설명’은 어근3이고, (4a,b)의 ‘설명’은 명사구라고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3b)의 ‘설명을’은 ‘깨끗을 하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근인 ‘설명’이 특수조사로서의 ‘을’을 가

5) 이것은 이익섭 1968, 1975의 정의이다. 이익섭 1975에서는 어근을 ‘어느 경우나 届接辭(語尾)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自立形式도 아닌 단어의 中心部로 정의하였다.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나 1989년의 〈한글 맞춤법〉에서도 다른 구성에서 단어와 용언어간으로 쓰이는 것은 어근에서 제외하고 있다.

6) 예: ‘문법을 자세한 설명한다’, ‘문법을 자세한 설명을 한다’, *[문법을 (설명→Ø) 하는] 설명’, ‘문법을 설명을 재미있게 한다’.

7) 예: ‘문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재미있게 한다’, [문법에 대해 (설명→Ø)하는] 설명. 단, 관계절 형성은 ‘행위’의 VP에서만 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한 성장”,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하는 對應”.

진 것이 된다.

결국 임 1979는 문제의 문형이 重 목적어 구문일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목적어 명사구를 가지는 타동사적인 V⁹⁾ 'X+하다'가 쓰였을 때, 자체 안의 'X'가 제2의 목적어 명사구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 자동사적인 'X+하다'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휴식+하다'는¹⁰⁾ 언제나 '휴식을 하다'에서 '을'이 생략된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긴 휴식+하고", "휴식 잠깐 하고", "노동 후에 하는 휴식"과 같은 말들이 성립하므로 '휴식+하다'는 언제나 '명사구+타동사'일 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고 2001a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사적인 'X+하다'들에도 '명사구+타동사'와 '어근3+접미사적인 동사'의 두 가지 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에서 자동사의 結果狀態相은 '어 있다'로 표현되고 타동사의 결과 상태상은 '고 있다'로 표현되므로,¹¹⁾ 이 사실을 이용하면 결과 상태상을 가질 수 있는 '正坐하다'와 같은 구성에서 '하다'가 타동사인지 아니면 어떤 접미사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결과상태상을 만들어 보면 '정좌+하다'의 결과상태상으로는 '정좌 하고 있다'와 '정좌해 있다'가 다 가능하므로, '정좌+하다'에는 '목적어+타동사'의 VP 구도 있고, '어근3+접미경동사'의 구성도

8) 필자는 목적어를 따로 가지는 복합적 서술어가 'X를 하다'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근3+접미사적 동사'의 어근이 특수조사 '를'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현희 1986, 1994:278-280에서는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에 이러한 '무엇을 X를 하다'와 같은 구성의 문장은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X하다'만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을 시름을 했다"는 없고 "...을 시름했다"만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필자의 직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9)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어로 보아온 'X하다'를 일종의 句 V[^]로 보기 때문에 'X 하다'를 타동사적인 V[^], 자동사적인 V[~]라고 하였다.

10) 'X'와 '하다'의 결합은 '어근3+접미사적 동사'일 때는 '휴식하다'와 같이 붙여 쓰고, 이 'X'에 특수조사가 결합한 경우는 '휴식을 하다'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하고 물었다와 같은 경우도 본고에서는 이 구조로 보므로 "안녕하세요?"하고 물었다와 같이 표시한다. '명사구+타동사'의 구조일 때는 '휴식을 하다'와 같이 띄어 쓰고, 대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식 하다'와 같이 띄어 쓰기로 한다.

11) 자세한 논의는 한동완 1999, 2000 참고.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다.¹²⁾ 다음에 ‘정좌하다’와 ‘무릎 꿇다’, 그리고 ‘바로 앉다’의 결과상태상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5) ‘바로 앉다’의 결과상태상 :	바로 앉아 있다	*바로 앉고 있다
‘무릎 꿇다’의 결과상태상 :	*무릎 꿇어 있다	무릎 꿇고 있다
‘正坐하다’의 결과상태상 :	정좌해 있다	*정좌하고 있다
‘正坐 하다’의 결과상태상 :	*정좌해 있다	정좌하고 있다

줄고 2001a에서는 또 V[^] 구조의 ‘설명하다’는 ‘깨끗하다’와 똑 같은 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¹³⁾ 따라서 접미사적 ‘하다’ 앞의 ‘설명’은 ‘깨끗’과 마찬가지로 어근3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타동사적인 ‘X+하다’뿐 아니라 자동사적인 ‘X+하다’에도 상이한 두 구조 ‘명사구+타동사’와 ‘어근3+접미경동사’가 있다고 본다.¹⁴⁾

그런데 ‘설명’이나 ‘깨끗’이나 ‘어근3+하다’로 쓰일 때, ‘깨끗하면 할수록’, ‘깨끗 내지 깔끔한’, ‘깨끗은 하지만’, ‘깨끗은 무슨 깨끗을 해’와 같이 ‘깨끗’과 ‘하다’가 각각 독자적인 단어로서의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비가 올 듯’과 같은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비가 올 듯하면 할수록’, ‘비가 올 듯 혹은 눈이 올 듯한’, ‘비가 올 듯은 하지만’, ‘비가 올 듯은 무슨 비가 올 듯을 해?’가 똑같이 성립하는 것

12) 타동사 ‘하다’를 가진 ‘정좌를 하다’로 하여금 ‘-어 있다’ 형 결과상태상 구성을 취하게 하면 ‘*정좌를 해 있다’라는 비문이 된다. ‘정좌하고 있다’는 앞의 주 10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면 ‘정좌 하고 있다’이다. 예를 더 들자면 (한강이) 結水+하다’도 ‘정좌+하다’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 준다.

13) 임홍빈 1979의 ‘설명하다’의 ‘설명’에 대한 非名詞句性 확인 검증법이 그대로 ‘깨끗’에도 적용된다.

14) ‘명사구+타동사 “하다”’가 본래의 목적어를 취하면 (4b)와 같이 본래의 목적어를 명사구 안에 내포하게 된다: ‘철수가 [문법] 설명을 한다.’ 본래의 목적어를 취하지 않거나 다른 성분으로 들리면 (4a) 류의 문장을 만든다: ‘[문법] 사항이 나오면, 철수가 [설명]을 한다’, ‘[문법]은 철수가 [설명]을 한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행위’나 ‘작용’의 사태명사만이 ‘명사구+타동사 “하다”’의 구성을 가질 수 있다. ‘관계’나 ‘작용’의 사태명사는 그럴 수 없다. 줄고 2001a 참고.

이다. '하다'의 보어로서 '비가 올 듯'이 가지는 자격이 '하다'의 보어로서 '깨끗', '설명'이 가지는 자격과 똑 같아야 할 것이므로, 출고 2001a에서는 어근 3구를 설정하여 '하다' 앞의 '깨끗', '설명', '비가 올 듯' 등을 모두 관할하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접미사적인 '하다'에 대해 '接尾輕動詞'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명사구를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 '하다'도, 논항 구조를 가지는 사태 명사를 보어로 하며 그 사태 명사로부터 복사 투영된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경동사로 인정하여 '他動輕動詞'라고 부른다. 따라서 'X하다'는 '어근구+접미경동사'의 구조이고, 'X 하다'나 'X를 하다'는 '명사구+타동경동사'의 구조가 된다.

이제 'X하다'와 'X(를) 하다'가 서로 다른 구조임을, 또, 그 'X'들이 서로 다른 범주의 것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문법 현상을 보이고자 한다. 편의를 위해 이 두 가지 'X'를 각각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라는 두 가지 'X'의 차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법 현상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 'X'의 형성에서의 '와/과' 접속, 'X'의 'X라는 것'으로의 대치의 세 가지를 보기로 한다.

출고 1997에서는 'X하다'와 'X(를) 하다'의 차이있는 행동으로서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을 논한 바 있다.

(6)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

a. <'X하다'의 경우>

방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 들어가 앓기가 주저될 정도이었다.

철수가 문법을 재미있게 설명, 학생들이 문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b. <'X(를) 하다'의 경우>

*철수가 문법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 학생들이 문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철수가 재미있게 문법 설명, 학생들이 문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의 부사절에서 어근구를 보어로 하는 접미

경동사 '하...'는 생략될 수 있으나, 명사구를 보어로 하는 타동경동사 '하...'는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다음으로 'X'를 형성할 때 'X를 하다'의 'X'는 '와/과' 접속을 허용하지만 'X하다'의 'X'는 그것을 불허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7) 'X'에서의 '와/과' 접속

a. <'X하다'의 경우>

*[푸근과 아늑]하다. (비교. [푸근 내지/혹은 아늑]하다)

*[중요와 긴요]하다. (비교. [중요 내지/혹은 긴요]하다)

*자료를 [분석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냈다. (비교. [분석 및 종합]하여)

b. <'X를 하다'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과 종합]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X를 하다'의 'X'는 'X라는 것' 따위의 변이형으로 대치될 수 있으나 'X하다'의 'X'는 그럴 수 없음을 보이기로 한다.

(8) 'X'를 'X라는 것'으로 대치¹⁶⁾

a. <'X하다'의 경우>

*철수도 학생들에게 문법을 설명이라는 것(을) ^ 해 보았다.

b. <'X를 하다'의 경우>

철수도 학생들에게 문법에 대해 설명이라는 것을 해 보았다.

15) '하...' 생략은 졸고 1997, 2001a에서 다른 '하...' 생략을 가리킨다. 부사절에서 언제나 이 '하...' 생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충족시켜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익섭 2003에서는 어미 '-어', '-고', '-어도' 등에 의한 종속절을 (접속이 아니라 내포되는) 부사절로 확인한 바 있다.

16) 'X라는 것을 하다'가 'X를 하다'와 동일하게 '사태명사구+타동경동사'라는 것을 그들의 논항 구조의 비교로 알 수 있다.

철수가 학생들에게 (문법이란 무엇이냐고/문법에 대해) 질문을 했다.

철수가 학생들에게 (문법이란 무엇이냐고/문법에 대해) 질문이라는 것을 했다.

철수도 학생들에게 문법 설명이라는 것을 해 보았다.

이렇게 '하다'-어근구 'X'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관계절을 만들기 위해 생략되지 못하며, '와/과' 접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X라는 것'으로 대치되지 못한다. 또 이들과 결합하는 접미경동사 '하다'는 독자적으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어떤 부사절에서 어미와 함께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점에서 '하다'-명사구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하다'-어근구는 명사구가 아니며, 'X하다'는 'X(를) 하다'와 구별되는 종류의 동사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7)에서 똑같이 통사론적 구성일 '분석과 종합'은 명사구로, '분석 및 종합'은 어근구로 대조시켰다. 임홍빈 1989에서는 이러한 통사론적 구성에 대한 '하다'의 결합을 파생으로 해석한 바 있다. '[비가 올 듯]하다'와 '[자는 체]하다', '[꽃이 붉거나 잎이 붉거나]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하다'와 같은 구성을 '[따뜻]하다', '[설명]하다'와 마찬가지로 '[X]'를 어기로 하고 '하다'를 접미사로 하는 파생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 'X'가 단어 이하의 형식일 때는 '형태적 파생'이고, 'X'가 단어보다 큰 구성일 때는 '통사적 파생'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들이 모두 'X'와 '하' 사이에 '통사적인 연결 장치'를 가지지 않으며, 'X'의 의미에 따라 '하'의 활용 유형이 비상태동사 활용과 상태동사 활용(즉 동사 활용과 형용사 활용)으로 갈린다는 것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제 이 통사론적 구성의 'X'를 가진 'X하다'들이 '하...' 생략과 '와/과' 접속, 'X라는 것'으로의 대치 등에서 일반적인 'X하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¹⁷⁾ 그런데 활용 유형이 형용사적인 'X하다'에는 본래 'X를 하다'가 병존하지 않으므로, 'X를 하다' 중에서는 '[... 체]를 한다'와 '[... -거나 ... -거나]를 한다'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9)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

17) 그 외에 표현적 장음화의 예를 보여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X하다'와 같다. 예: 깨끗::하다, [비가 올 듯)::하다. 졸고 1991 참고.

a. 〈X 하다'에서〉

[금방 비가 올 듯](이←하+이),¹⁸⁾ 하늘이 어두워졌다.

철수는 [자는 체](하고), 가만히 있었다.

[꽃이 붉거나 잎이 붉거나](^하여도), 다 예쁘다.

[걷거나 달리거나](^하여도), 다 팬찮다.

b. 〈X를 하다'에서〉

(확인되지 않음.)

(10) 'X'에서의 '와/과' 접속

a. 〈X하다'에서〉

(*[비]가 올 듯과 눈이 올 듯)하다.' 등 모두 불성립.)

b. 〈X를 하다'에서〉

[자는 체와 공부하는 체]를 번갈아 한다.

[읽거나 쓰거나와 듣거나 말하거나]를 돌아가며 한다.

(11) 'X'의 'X라는 것'으로의 대치

a. 〈X하다'에서〉

(*[[비]가 올 들판이라는 것]하다.' 등 모두 불성립.)

b. 〈X를 하다'에서〉

나도 [[자는 체]라는 것]을 여러 번 해 보았다.

*[[산에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라는 것을 한번 해 보겠다.

(9b)의 경우, '[... 체]'나 '[...-거나 ...-거나]'가 '하다'-명사구로 해석되려면 반드시 격조사 '를'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환경에서는 '하...' 생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⁹⁾ (10b)에서는 '[... 체]'의 예문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거나 ...-거나]'의 예문은 실제 쓰일 가능성은 낮다 하여도 문법적이라고 생각된다. (11b)에서는 '[...-

18) '듯이'의 '-이'는 예컨대 '책이 없이'의 어미 '-이'인데, '듯하-'에서는 '하-'와 중첩되어 '-이'로 나타난다(이←하←하+이)고 본다.

19) 예를 들어 '철수는 자는 체를 그럴듯하게 했다'는 성립하지만, '를'이 없는 '철수는 자는 체 그럴듯하게 했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체]'의 예문만 성립한다. 그러나, 통사론적 구성의 'X'를 가진 'X하다'가 이 세 가지 문법 과정을 형태론적 구성의 'X'를 가진 'X하다'와 동일하게 수행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깨끗하다', '정좌하다', '설명하다' 등과 '비가 올 듯하다' 등 본 장에서 본 모든 'X하다'가 동일하게 '어근구+접미경동사 "하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어근구는 '명사구+타동경동사 "하다"'의 보어 명사구와 문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II. '하다'-語根句의 설정

2장에서 우리는 '하다'-어근구가 명사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非명사구적 성격을 어근3의 성격이라고 보아 그 非명사구를 '어근구'라고 명명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단어보다 작은 요소인 '어근'에 '句'를 붙인, 일견 혼란스러운 이 命名을 응호하고, '하다'-어근구의 본질적 성격을 보이고자 한다.

'하다'-어근구에 관할되는 'X'의 예들을 범주적 성격에 따라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_하다' 외의 자리에서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못하여, 품사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의 'X'부터 제시한다. 이들에게는 품사범주는 아니나 그에 가장 가까운 범주로 '어근2'를 부여한다. 어근2는 소극적으로 규정된 품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단어로 쓰이지 못한다'는 조건에 의해 非명사, 非부사, 非관형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다른 곳에서 용언 어간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조건에 따라 非동사, 非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X하다'가 외부적으로는 단어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의미 중심부도 '어근'이라고 한다면, 기존 품사와 어근1, 어근2, 어근3을 통틀어 어근2가 'X'들을 가장 가깝게 포괄할 수 있다.

(12) 'X'는 어근2, 어근2구

- 착하다, 깨끗하다, 노르스름하다 (형용사적); 반하다, 對하다 (동사적)
- 비가 옴/왔음/왔었음 직하다, 비가 올 듯/만/法하다 (형용사적)

- c. 꽃이 봄거나 잎이 봄거나~하다(형용사적);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하다 (동사적)

(12b)의 'X'는 구의 내부 구조로 보면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_하다'를 제외한 다른 어떤 환경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 앞으로 관형어나 목적어 등 명사구로 쓰이도록 발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명사적 성격을 못 가진다고 판단된다.²⁰⁾ (12b)에서도 '... 직'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 '-ㅁ'이 만드는 절에 의해 수식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12c)는 語幹文이 '-거나'에 의해 반복된 것이다. 문장에서 어말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즉 어간문은 문체법 어미가 결합하여 문장이 되든지, 자격법 어미가 결합하여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이 되어야 문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거나'는 어간문을 나열할 뿐 그것에 어떤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나'에 의한 나열된 형식은 '하다'의 보어가 되는 의의를 가질 뿐이므로 (12b)와 마찬가지로 어근구가 된다. '-거나'로 나열된 형식이 '하다' 없이 부사절처럼 쓰인 것은 모두 '하...'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²¹⁾

다음의 예는 模寫的으로 인용된 의성의태어와 發話이다.

(13) 'X'는 모사된 의성의태어

- a. “덜컹!”하다, “덜컹! 덜컹!”하다 (동사적)

20) '貴重하다', '豪華하다' 같은 V^의 2음절 이상 한자어 'X'들은 '귀중 도서', '호화 주택'에서처럼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유어는 이러한 관형어적 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알뜰'이 '알뜰시장' 등에서 그와 비슷한 용례를 보여주나 이것은 특별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아직 관형어 용법을 보여 주지 않는 '高貴하다'의 '고귀'를 포함하여 '귀중' 류는 구조적으로 명사라고 처리한다. 또, 2음절 이상의 [행위], [작용]의 고유어는 의성의태어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구조적으로 단어 자격을 가진다고 인정한다. '갈음'이나 '맞이'는 '-음'과 '-이'가 명사임을 드러내고, '비롯', '이룩은' '비롯되다', '이룩되다'에서 명사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성의태어가 아니면 명사로 인정한다.

21)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 '-거나'가 연결된 형식은 부사절이 된다. '-거나'의 부사화 어미로서의 용법은 단순한 나열 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하다'가 결합될 수 없다. 예: 그것이 무슨 꽃이거나 (*하여도) 다 좋다.

b. “파릇!”하다, “파릇::파릇”하다 (형용사적); “비틀!”하다, “비틀::비틀”하다 (동사적)

(14) 'X'는 모사된 發話

“철수가 웃소!”^하다²²⁾

(13)의 것들은 모사적으로 인용된²³⁾ 요소이다. “덜컹!”과 같은 소리만이 아니라, “비틀!”, “비틀::”과 같은 동작의 모양, 심지어는 ‘좋은 생각이 “반짝!”하고 떠올랐다’, ‘눈 속에서 민들레 싹이 “파릇!”하고 돋아 났다’에서와 같이 비유적이거나 靜的인 모양도 인용될 수 있다. (14)는 發話의 인용인데 (13)과 같은 모사적 요소를 다분히 가진 것이다. 조사 ‘라고’를 붙여 인용할 때는 모사적 요소가 없는 문장을 인용하고, ‘하다’로 인용할 때는 모사적 요소를 가지는 발화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발화의 모사적 인용이라고 보기로 한다. 국어 문법에서는 발생하는 존재로서의 소리, 모양, 發話 등이 모사적으로 인용되면 [사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따옴표를 한 채 ‘하다’의 보어가 된다. 모사에는 특별한 음성들이 사용될 수 있다. 들이쉬는 숨을 이용하는 ‘쯧쯧!’과 같은 특별한 音聲은 그 좋은 예이다. 또, 표현적 강세와 음장도 이들 의성의태 형식들에 잘 쓰인다. 위에서 예를 제시하면서 모두 겹친 장음부호나 느낌표를 붙인 것은 그 모사적 음성 자질을 나타낸 것이다.

반복된 모사 요소는 따옴표를 벗고 문법 내 요소가 될 수 있다.²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특유한 의성의태적 음성 자질들을 잃는다.²⁵⁾ 그런데 이

22) 남기심(1973=1996:186)에서는 이와 같은 예들을, 인용되는 말조각이나 문장을 어기로 하여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3) 이 모사적 인용은 흔히 말하는 직접인용과 다르다. 직접인용은 언어형식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곳의 모사적 인용은 비언어적 형식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비유하자면 직접인용은 현실의 어떤 정보를 문자 파일로 바꾸어 옮기는 것이고 이곳의 인용은 이미지 파일로 바꾸어 옮기는 것과 같다.

24) 반복된 요소는 바로 침어이다. “철수가 웃소!”와 같은 문장은 반복되어도 따옴표를 벗지 못한다.

25) 그러나 이 따옴표를 벗은 형식이 어휘부에 따로 등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따옴표에 써인 형식으로부터 투명하게 문법 내 요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렇게 해서 된 문법 내 요소는 부사라기보다는 바로 앞의 (12a)에 속할, [사태] 의미의 어근2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하다'의 보어로서만 나타나거나, '하다' 없이 나타나더라도 언제나 '하다'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다' 없이 나타나 부사처럼 보일 때도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옴표를 벗은 의성의태어의 단어형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 'X'는 의성의태 어근2

- a. *덜컹하다, 덜컹덜컹하다
- a'. 덜컹거리다, 덜컹덜컹거리다
- b. *파릇하다, 파릇파릇하다; *비틀하다, 비틀비틀하다, *반짝하다, 반짝반짝하다
- b'. *파릇거리다, *파릇파릇거리다; 비틀거리다, 비틀비틀거리다, 반짝거리다, 반짝반짝거리다

'하다'는 국어의 동사나 접미사 가운데 따옴표에 싸인 피인용요소를 보아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13), (14)와 같이 특별한 음성 자질이 유지된 채 'X하다'가 형성된다. 그러나 그중에서 반복 요소가 아닌 것은 따옴표를 벗을 수 없으므로 (15)에서 보듯이 '*파릇하다', '*덜컹하다', '*비틀하다', '*반짝하다'는 불가능하다. '-거리다'는 따옴표를 벗은 動的인 의미의 반복형을 여기로 할 수 있고, 또, 반복된 요소 중 하나를 생략한 비반복형도 여기로 할 수 있다. '-거리다' 자체에 '반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거리다'의 결합과정에서 도출된 비반복형도 (12)의 어근2에 속하게 된다.²⁶⁾

"쯧쯧!"하다'의 발음에서는 吸氣를 이용하는 발음이 가능하지만 '쯧쯧거리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표현적 장음이나 강세 등 모사 동기에서 채용된 것은 따옴표를 벗을 때 없어지지만, 화자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적 장음이나 강세는 유지될 수 있다.

26) '이다'는 '거리다'처럼 따옴표를 벗은 어근2로서의 의성의태어(그중에서도 動的인 의미를 가졌으며 말음이 'ㄱ'이거나 'ㅇ'인 것)를 여기로 하되 반드시 반복된 요소 중 하나를 생략시킨다. 예: 덜컹이다, *덜컹덜컹이다, 반짝이다, *반짝반짝이다, *

그런데 부사들은 의성의태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X하다'를 구성할 수 없다.

(16) a. 의성의태 어근, b. 'X하다' 형성이 불가능한 부사

가로등이 <u>드문드문</u> (하게) 서 있다	<u>쿄데쿄데</u> 서 있다
떡이 <u>비슷비슷</u> (하게) 나누어졌다	<u>고루고루</u> 나누어졌다
순회가 <u>사뿐사뿐</u> (하게) 걷는다	<u>살금살금</u> 걷는다
산길이 <u>구불구불</u> (하게) 돌아간다	<u>굽이굽이</u> 돌아간다
주머니가 <u>뻥뻥</u> (하게) 차 있다	<u>꽉꽉</u> 차 있다

(17) a. 의성의태 어근, b. 'X하다' 형성이 불가능한 부사

눈물이 <u>주르륵</u> (하고) 흘렀다	<u>줄줄</u> 흘렀다
멈칫멈칫(하며) 놀려 보았다	<u>살짝살짝</u> 놀려 보았다
새가 날개를 파닥파닥(하며) 날았다	<u>훨훨</u> 날았다
화가 불끈불끈(하고) 났다	<u>벌컥벌컥</u> 났다

(16a)는 상태동사적인 'X하다'들의 예문이고, (17a)는 비상태동사적인 'X하다'의 예문들이다. (16b)와 (17b)는 각 행의 (a)와 비슷한 의미로 'X하다'들이 만들어질 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들이다. (16a), (17a)의 밑줄친 요소는 어근2이고 (16b), (17b)의 밑줄친 요소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X하다'의 'X' 자리에 부사가 올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통념은 의성의태어들을 부사가 아니라 'X하다'의 '하...' 생략형이라고 함으로써 부인된다.²⁷⁾

파릇이다.

27) 이 가설에 예외가 될 만한 것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 1) 거듭하다, 다하다, 어찌하다, 잘하다, 잘못하다, 오로지하다
- 2) 더하다, 덜하다, 못하다, 아니하다, 너무하다

동사로서의 1), 2)는 모두 '부사+重동사 "하다"의 합성동사로 출발한 것이며, 형용사로서의 2)는 그 합성동사에서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합성동사로 머물러 있고, 본고의 V^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듭하다', '잘못하다' 정도인데(이들은 '하...' 생략을 보여줌), 이 들은 합성동사에서 V^로 성격이 바뀐

이제 'X하다'의 'X'가 다른 곳에서 명사(구)인 예들을 보자.

(18) 'X'는 명사(구)

- a. 가난하다, 貴重하다, 高貴하다, 健康하다 (형용사적); 비롯하다, 該當하다, 相當하다, 土臺하다, 자리하다, 成長하다, 蒸發하다, 갈음하다, 자랑하다, 自處하다, 說明하다 (동사적)
- b. 1등하다, 2등하다, 1위하다, 2위하다, 자는 체/척/様하다 (동사적)

(18a)의 명사들은 모두 [사태]의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그렇지 못한 명사들은 '하다'의 보어가 될 수 없다. '음악(을) 한다'와 같은 경우,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이 불가능하며, 'X'가 '와/과'로 접속될 수 있고, '하다'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음악과 미술을 다 한다') V^인 'X하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음악'은 사태명사가 아니므로 접미경동사를 가진 '음악 하다'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²⁸⁾ 음악은 사태명사화하지 못하였지만, '土臺'과 '자리'는 換喻的 과정을 거쳐 각각 '토대를 둠', '자리를 차지함'이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행위]와 [관계]의 사태명사가 되었다.²⁹⁾

(18a)의 '갈음'은 명사로 만들어졌지만 단어적 사용처가 '__하다'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근2로 판정할 수도 있다.³⁰⁾ 그러나 '갈음'은 조어론적으로 단어로서 적격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단지 현재의 신분이 内部語이다.³¹⁾ 또,

것으로 본다.

28) 본고에서는 '진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태명사라면 일반적으로 '명사 中이다'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18b)와 같은 형식명사구는 제외). 본고 4장 참고. '음악'은 '*음악 중이다'를 만들지 못하므로 사태명사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일 VO로서의 '음악하다'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중동사 '하다'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합성동사라고 본다.

29) '토대하다'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철수는 관찰에 토대하여 설명 논리를 구상했다. (행위)

이 연구는 관찰에 토대하고 있다. (관계)

반드시 관찰에 토대, 설명 논리를 구축할 것. ('하...' 생략)

30) 예) 갈음한다/*갈음을 빨리 한다/*갈음이 필요하다, 갈음옷.

31) 줄고 1996:19, 1999, 2001b에서는 본고의 '内部語'를 '潛在語'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實在語가 아닌 可能語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워 본고에서는 '내부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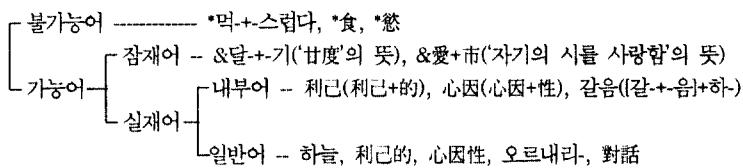
줄고 1999에서는 현대국어의 한자어는 1음절로서는 의존형식이 되지만, 2음절 이상이면 자립성을 획득하여 자립형식이 되기 때문에, 한자 2字語는 단어로서 적격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국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2음절 한자어 형식은 단어로서 적격한 셈이다.³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갈음'이나 한자어 '高貴', '自處' 등을 현재는 단어 내부(V^ 내부 포함)에만 나타났지만 명사로서의 素性을 갖추었기 때문에 표현할 개념이 있으면 언제든 일반 단어가 되는 '명사'로 인정한다(앞의 각주 20 참고).

(18b)의 '... 체/척/様'은 [행위]의 뜻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만 '... 等'과 '... 位'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토대', '자리'와 마찬가지로 환유적 의미 작용에 의해 어떤 비유적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그 위치를 차지함'의 뜻으로 바꾼 결과 [행위]의 사태명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 'X'에서의 '와/과' 접속 불가 등 어근구적 성격을 보여준다. '등'의 경우를 보자.

(19) 〈X하다〉 구성

- 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1등, 3년 연속 선수권을 차지했다. ('하... ' 생략)
-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1등 및 2등, 3년 연속 단체 우승을

바꾸어 부르고, '잠재어'는 '가능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단어'의 뜻으로 쓴다. 이 새 체계의 '잠재어'는 '단어로서 적격한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언제든 지칭될 개념이 나타나면 형성되어 사용될 형식'이다. 국어에 아직 내부어로도 나타나지 않은 '달기'(甘度), '愛市'는 잠재어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새 체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즉 현대국어에서 1음절 한자 형태소들은 의존 형식이고, 모든 2음절 이상의 한자 결합은 可能語 (潛在語와 實在語)이며, 實在語 중에 언제나 더 큰 단어의 성분으로만 사용되는 内部語와 일반적인 단어가 있는 것이다.

했다.

*우리 선수들이 1등과 2등, 3년 연속 단체 우승을 했다. ('와/과' 접속 불가)

〈X를 하다' 구성〉

철수는 이미 1등을 여러 번 했다.

위의 모든 경우들에 다음과 같이 나열된³³⁾ 형식이 'X'로 쓰인 예들을 구성할 수 있다.

(12') 'X'는 어근2, 어근2구

- a. 잎이 [노르스름 혹은 파르스름]하다. 이것은 그 일에서 [비롯 내지 유래]한 놀이이다.
- b. ??날씨가 [비]가 옴 직 내지 눈이 옴 직하다, 날씨가 [비]가 올 듯 내지 눈이 올 듯]하다.
- c. [꽃이 붉거나 잎이 붉거나 혹은 대가 붉거나 뿌리가 붉거나] 다 봉송이다.

(13') 'X'는 모사된 의성의태어

마차에서 ["덜컹!", Ø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

(14') 'X'는 모사된 발화

사람들은 제각기 ["철수가 웃소!", Ø "복동이가 웃소!"]^하였다

(15') 'X'는 의성의태 어근2

- a. 마차에서 [달컹달컹 또는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났다.
- b. 숲이 [푸릇푸릇 내지 파릇파릇]하였다,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Ø 배틀배틀]하였다.

(18') 'X'는 명사, 명사구

- a. [가난 내지 빈곤한 사람들,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33) 본고에서는 '조사와 분석'처럼 두 항을 '와/과'로 확대하는 것을 접속이라고 하고, '조사 (Ø, 및, 또는, 내지) 분석'처럼 'Ø', '및', '또는', '내지' 등에 의해 확대하는 것을 나열이라고 구별하기로 한다.

b. 8강전에서 [1등 내지 2등]하면, [못 본 체 Ø 못 들은 체]하더라.

이들은 그 성분 형식들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성분 형식들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해 보자.

(20) 범주	예	의미
a. 어근2(구)	착, 깨끗, 반, ... 직,	[사태]
a'. 의성의태 어근2(구)	덜컹덜컹, 푸릇푸릇	[사태]
b. 모사된 의성의태어	“덜컹! 덜컹!”, “푸릇::푸릇”	[사태]
c. 모사된 발화	“철수가 옳소!”	[사태]
d. 명사(구)	가난, 高貴, 該當, 자랑, 1등, ... 체	[사태]
e. 위의 나열	조사 {Ø, 및, 또는, 내지} 분석	[사태]

우리는 위의 예들이 접미경동사 '하다'의 보어로서 2장에서 본 바 문법적으로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句 범주로 묶고자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X하다'의 본질적 성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구조적으로 'X'와 '하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자. 'X'와 '하다'의 관계가 '목적어+타동사' 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2장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면 '부사어+형용사/동사' 관계로 볼 수는 있는가? 'X'와 '하다' 가운데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은 'X'이고, 그 'X'의 의미가 '하다'의 활용 유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부사어+형용사/동사'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X하다'의 'X'와 '하다'의 구조적인 관계는 예컨대 '義+롭다', '榮華+롭다'나 '쪽+스럽다', '어른+스럽다', 그리고 '덜컹+거리다', '덜컹덜컹+거리다'에서 보는 '어근3+접미사'의 관계와 가장 가깝다. 이것은 한 마디로 파생적 관계이다. 그러나, 그것이 파생이라고 할 때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가 완전히 투명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파생어 형성보다는 통사론적 구 형성과 같다.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다'가 구를 어기로 가지는 것도 통사론적 구 형성의 성격이다. 그 결과물인 파생어의 어간의 일부가 생략 등 통사

론적 변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통사론적 구 형성의 결과물이 가지는 성격이다. 그러므로 'X'와 '하다'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파생적이고 부분적으로 통사론적이라고 하여야 한다.

'X하다'에서 [X]는 '사태'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다'는 그 의미에 어떠한 변개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서술어의 형식을 갖추어 줄 뿐이다. 이 접미경동사 '하다'의 보어가 되는 데 'X'의 범주는 비관여적이다.³⁴⁾ 그 것이 다른 곳에서 명사이든 따옴표 속의 말이든, 단어보다 작은 어근2이든 단어이든 단어보다 큰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 오직 '사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X'의 자리에 와서 '하다'의 형식과 합해져 하나의 단위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품사적 성격이 없이 의미만을 가지고 형태론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근3이며, 어근2는 어근3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X'의 범주를 말한다면 語根3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때의 '어근3'은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중심부뿐만 아니라 V^의 의미중심부도 포함하는, 확대된 어근3이다. 그리고 또 '... 직'의 예는 이것이 句 충위의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의 'X'는 정확히 말하면 '확대된 語根3의 句'이다.

이 어근3句 節點의 아래에는 어근2, 어근2구, 모사된 의성의태어, 모사된 발화, 명사, 명사구가 올 수 있다. '철수가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의 '설명'은 명사구의 관할을 받는 명사이고 '철수가 문법을 설명한다'의 '설명'은 어근3句의 관할을 받는 명사라고 보면, 이 두 환경의 명사 '설명'은 하나의 어휘항목이라고 본다.³⁵⁾

34) 국어의 단어들 중에서 '사태'의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것은 물론 동사와 형용사 어간인데, 이들은 '__하다'의 위치에 오지 못한다. '용언 어간+하다'가 본래의 그 용언과 뜻이 완전히 동일하여 형성이 저지되기 때문일 것이다.

35) 이 어근3구는 '__하다' 이외의 환경에서도 쓰이는, 국어 문법의 일반적인 범주로 일반화될 수 있는가? 적어도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 생부르다'의 '비가 올 성'은 '하다'-어근3구와 구별되지 않을 것이므로 '하다'-어근3구는 '하다'/싶다'/부르다'-어근3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법이다', '일쑤이다', '엉망이다', '(A는 B 와) 반대이다' 등이 고려되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이러한 일반화를 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하다'-어근3구라는 특수한 환경의 어근3구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다.

IV. '하다'-名詞句의 성격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사태명사가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라는 다른 구조의 구를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또 동일한 사태명사가 만드는 '하다'-명사구와 일반 명사구도³⁶⁾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로 한다. 예컨대 '설명한다'와 '설명을 한다', '설명을 듣는다'의 세 가지 '설명'이 다 다른 모습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태명사가 세 가지 위치에 출현할 때의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세 가지 위치는 접미경동사의 보어가 되는 '하다'-어근구의 위치, 타동경동사의 보어가 되는 '하다'-명사구의 위치, 그리고 일반적인 명사구의 위치이다. 중동사 '하다'의 보어는 일반적인 명사구에 든다. 여기에 하나의 위치를 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태명사가 조사 '의'를 가지지 않은 채 관형어로 쓰이는 위치이다.

먼저 각 의미부류의 사태명사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이 네 가지 위치에 쓰일 가능성이 제각각 다를 수 있음을 보기로 하자. 아래 표에서 상태명사와 관계명사의 '하다'-명사구 자리는 구조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이다.

36) 본고에서 말하는 '일반 명사구'는 '하다'의 보어로 쓰이지 않은 명사구를 말한다. 본고는 아직 일반 명사구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용언들의 보어 명사구도 특별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지금까지 경동사 혹은 기능동사로 거론되어 온 용언들의 보어는 피하여 예를 들기로 한다.

(21)

	'하다'- 어근구	'하다'-명사구	일반 명사구	관형 위치
상태 명사	溫和하다	-	*	*
	特殊하다	-	*	특수 학교
	幸福하다	-	너의 행복이	*
관계 명사	비롯하다	-	*	*
	該當하다	-	*	해당 사항
	直面하다	-	죽음과의 직면에서	*
작용 명사	彷彿하다	*	*	*
	不通하다	??불통을 하다	전화의 불통으로	전화 불통 사고
	蒸發하다	증발을 빨리 하다	물의 증발이	증발 속도
행위 명사	自處하다	??자처를 늘 하다	너의 애국자 자처는	*
	留意하다	?유의를 많이 하다	?건강에 대한 유의가	유의 사항
	說明하다	설명을 많이 하다	간명한 설명이	설명 방법

위 표에서 우리는 '하다'-어근구 명사가 '하다'-명사구 명사보다 원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다'-어근구 명사가 '하다'-명사구 명사보다 원래적이라는 주장은 졸고 2001a에서 'X를 하다'의 의미를 'X를 X하다'로 해석한 것에서도³⁷⁾ 도출된다. 왜냐하면 마치 '물음을 묻다'가 '묻다'를 전제하고서야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X를 하다'도 'X하다'를 전제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또 '도움' 류의 사태명사가 위의 위치에서 쓰이는 모습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어의 명사들 가운데는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에 쓰이는 용법이 기대되는데도 전혀 그렇지 못한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도움'은 동사 '돕다'의 파생명사로서 그 의미가 완전히 투명하므로 [사태]적 성격이 온전하다. 따라서 '도움'은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에 자연스럽게 쓰일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로 '도움'은 '하다'-어근구에도 '하다'-명사구에도 쓰이지 못하고 일반 명사구에만 쓰인다.

37) 본고 머리말의 '(2) [[설명]_{NJNP}]을 [[e=[설명]_{NJNP} [하]_{M+suffix}]V]_{Vp}' 참고.

(22)	*도움하다 *물음하다 *가르침하다	*도움을 하다 *물음을 하다 *가르침을 하다	너의 도움에 감사한다 네 물음에 답하려고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23)	다짐하다 노름하다	다짐을 하다 노름을 하다	너의 굳은 다짐에 너의 노름 때문에

줄저 1996b:136-141에서는 ‘*도움하다’가 동사 ‘돕다’의 저지(blocking)를 받기 때문에 V^로서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다짐’처럼 의미론적 어휘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짐하다’를 만들어도 ‘다지다’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짐하다’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저지와 저지의 해소는 완전한 구인 ‘도움을 하다’ 보다는 단어적 성격을 겸하여 가지는 작은 구인 ‘도움하다’에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예는 ‘하다’-어근 구 명사의 성립이 ‘하다’-명사구 명사의 성립을 결정한다는 본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이제 동일한 사태명사가 일반 명사구와 ‘하다’-명사구에 쓰인다면 일반 명사구와 ‘하다’-명사구가 가지는 구조도 동일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다’-명사구와의 비교가 가장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重動詞 ‘하다’의 목적 보어 명사구와의 비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명사구는 꼭 목적어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관형어, 부사어 자리에도 올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반 명사구를 고려하되 특히 중동사 ‘하다’의 목적어 명사구를 중심에 두고 비교해 보기로 한다.

중동사 ‘하다’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중동사 ‘하다’는 문맥에서 추리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타동경동사 ‘하다’는 보어 명사구의 핵인 사태명사의 의미가 투영된 投影意味를 가지지만, 타동중동사 ‘하다’는 문맥에서 추리된 推理意味를 가진다.³⁸⁾

다음에 ‘소리’의 경우로써 이를 보기로 한다.

38) 서정수 1975:84-94에서 이러한 중동사 ‘하다’를 선행요소가 암시하는 “적절한” 동사를 대리하는 동사라고 한 바 있다.

(24) 경동사 '하다'와 사태명사 '소리'

- a. 소리: [행위], '소리 演行'
- b. 철수는 늘 할아버지를 앞에서 소리, 할아버지들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철수는 소리를 중단하였다. 철수는 아직 소리 중이다.

- c. '소리를 하다'에서 '하다'의 의미: [(e=소리)+하]~다

(25) 중동사 '하다'와 일반명사 '소리'

- a. 소리: [구체], '물리적 존재, 청각의 대상'
- b. *철수는 할아버지 앞에서 크게 소리, 야단을 맞았다.
*철수는 소리를 중단했다. *철수는 소리 중이다.
- c. '소리를 하다'에서 '하다'의 의미: 산출하다

타동경동사 '하다'와 타동중동사 '하다'의 차이는 의미 해석 방법에 있다. 전자는 자신의 보이 명사구의 핵명사의 의미가 투영된 투영의미를 가지지만 후자는 맥락에서 추리된 의미를 가진다. 타동중동사 '하다'의 추리의미는 (26)에서 보듯이 常例化한 것들이 많다.

- | | |
|--------------------|-----------------------------|
| (26) a. 음악을 열심히 하다 | 하다 ≈ 관련 활동(직업으로서/학업으로서)을 하다 |
| b. 새 양복을 어렵게 하다 | 하다 ≈ 장만하다 |
| c. 목도리를 예쁘게 했다 | 하다 ≈ 착용/패용하다 |
| d. 표정을 슬프게 했다 | 하다 ≈ 산출하다 |
| e. 매운탕을 맛있게 하다 | 하다 ≈ 요리하다 |
| f. 서점을 크게 하다 | 하다 ≈ 운영하다 |
| g. 머리를 예쁘게 하다 | 하다 ≈ 이발하다 |
-

그러나 이렇게 상례화된 의미가 많기 때문에 청자는 어떤 명사가 여러가지 상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역시 추리에 의해 적당한 의미를 선

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목도리를 했다'의 '하다'는 '직업으로서 관련 활동을 하다', '장만하다', '착용/패용하다' 등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알맞은 의미를 선택하여야 한다.

'하다'의 추리 의미가 상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자가 그것을 추리해 내야 한다.³⁹⁾

- (27) a. 철수는 일부러 슬픈 마음을 해 보았다.
- b. 철수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로 굳게 마음을 해 보았다.
- c. 철수는 물에 떠가는 풀잎을 보며 마음을 해 보았다.

중동사 '하다'가 추리되는 의미를 가진다면, 타동경동사 '하다'의 투영의미 획득은 추리의미 획득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사태명사구를 목적어로 하는 '하다' 문장에서 그의 '하다'에 부여할 의미를 추리해내는 것은 거의 불투명한 경우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완전히 투명한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태명사구의 경우란 바로 그 완전히 투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타동경동사 '하다'의 구문은 사실은 타동중동사 '하다'의 특수 예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른바 타동경동사 구문이란 보어 명사구의 핵이 사태명사인 경우의 타동중동사구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검토해야 할 가정이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하다''의 구문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어가 사태명사이냐 비사태명사이냐 하는 데 있다.

39) 非사태명사로 된 'Y를 하다'를 만났을 때, 화자는 문맥이 요구하는 추리 의미를 'Y'에 부여하여 해석할 수도 있고 '하다'에 부여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Y에 부여되는 추리 의미는 반드시 事態名詞化를 포함하므로 첫번째 방식을 택하면 새로운 사태명사가 탄생하게 된다. 두번째 방식은 '하다' 중동사 구문의 일상적인 해석 방식이다. 참고 1997 참고. 첫번째 방식이 강력하게 선호되는 문맥도 있는 듯하다. 다음 詩句의 '마음하다'는 그 예이다. "가여운 이 내 속을 둘 곳 없어서 / 날마다 풀을 따서 물에 던지고 / 훌러기는 잎이나 말해 보아요." (소월의 〈풀따기〉에서)

보어가 비사태명사이면 동사 '하다'는 중동사로서 추리의미를 가진다. 보어가 사태명사이면 그의 '하다'는 일반적으로 경동사로서 투영의미를 가지지만, 중동사 구문으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중동사로서 추리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어떤 문장의 '하다'가 경동사인지 중동사인지를 판별해 주는 장치를 찾아 보기로 한다. 다음의 '中이다' 구문과 '바라다' 구문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행동을 보여준다.⁴⁰⁾ 본고에서는 이것을 '하다'에 경동사 구문과 중동사 구문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서 경동사 '하다'와 중동사 '하다'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중이다'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하다'-어근구 'X'가 쓰인 'X하다'가 진행상을 가질 수 있을 때, 'X하는 중이다'에서는 '하는'이 생략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태명사 'X'를 명사구로 하는 '하다' 구문에서도 이 '하는' 생략이 일어날 수 있다(이 경우는 정확히는 '을/를 하는'의 생략이다).⁴¹⁾

- (28) a. 철수는 컴퓨터를 [수리] 중이다.
 - b. 철수는 [컴퓨터 수리] 중이다.
 - c. *철수는 [컴퓨터의 수리] 중이다.
- (29) a. 철수는 그때 서울에 [유학] 중이었다.
 - b. 철수는 그때 [서울 유학] 중이었다.
 - c. *철수는 그때 [서울에의 유학] 중이었다.

(28a), (29a)는 접미경동사 '하는'이 생략된 것이다. (28b,c)는 모두 행위명사 '수리'나 '유학'의 논항을 관형어로 하는 명사구를 취한 것인데, 조사 '의'가 없는 'Y X' 형 명사구만 받아들여지고, '의'가 있는 'Y의 X' 형 명사구는 거부된다. 그런데 'Y의 X'가 거부되는 현상은 '中이다' 구문에서만 일어나고, 다음 (30), (31)에서 보듯이 '中에'의 앞이나 일반 동사들의 보어로 쓰일 때

40) '中이다'의 용법에 대해서는 高永根 1980 참고.

41) (28), (29)에서 '하는'이나 '을/를 하는'의 생략을 삼정하지 않는다면, '중이다'를 또 하나의 경동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다.

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Y의 X'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명사구이지만 '중이다'의 앞에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명사구의 '의'는 (30)에서처럼 명사에 바로 결합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 다른 부사격 조사와 함께 결합했을 때는 (31)에서처럼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30) a. 철수는 [컴퓨터(의) 수리] 중에 컴퓨터에 대해
 - b. 철수는 [컴퓨터(의) 수리]를 계획했다/중단했다/포기했다/미루었다.
 - c. [철수의 컴퓨터(의) 수리]에서 중요한 것은
- (31) a. 철수는 [상황실(에의) 보고]/[서울(?에의) 유학]/[국가에의 충성] 중에
 - b. 철수는 [상황실(에의) 보고]/[서울(?에의) 유학]/[국가에의 충성]을 포기했다.
 - c. [철수의 상황실(에의) 보고]/[철수의 서울(?에의) 유학]/[철수의 국가에의 충성]은

중동사 '하다' 중에서, 진행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중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를 하는'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기타 다른 일반 동사의 생략은 유의미한 요소의 무단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

- | | |
|--|-------------------------------|
| (32) a. 철수는 매운탕을 하는 중이다.
b. 순회는 머리를 하는 중이다. | *철수는 매운탕 중이다.
*순회는 머리 중이다. |
| (33) a. 철수는 영화를 보는 중이다.
b. 철수는 취직을 추진하는 중이다. ⁴²⁾ | *철수는 영화 중이다.
*철수는 취직 중이다. |

'바라다' 구문 역시 사태명사와 경동사 '하다'의 판정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중이다' 구문은 진행상을 가질 수 있는 행위명사와 작용명사가 만들 수

42) '추진하다'를 한 동사처럼 취급하여 예문을 구성하였다.

있는 것인데, ‘바라다’ 구문은 진행상과는 관계없이 행위명사들이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다. (34)는 이곳에서 말하는 특별한 ‘바라다’의 문장이고, (35)는 비교를 위해 든 일반적인 ‘바라다’의 문장이다.

- (34) a. 희망자가 직접 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 바람.
 b. 희망자가 직접 사무실에 [지원서(??의) 제출] 바람.
 c. *희망자가 직접 [사무실에의 지원서 제출] 바람.
- (35) a. 우리는 [희망자가 직접 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b. 우리는 [희망자의 사무실에의 지원서(의) 제출]을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자의 지원서(의) 사무실(에의) 제출]을 바랍니다.

‘제출’과 ‘바람’ 사이에 (34a)에서는 ‘하기’를 넣을 수 있고, (34b,c)에서는 ‘을 하기’를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특별한 ‘바라다’ 구문도 접미경동사 ‘하기’ 또는 타동경동사의 ‘을/를 하기’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⁴³⁾ 이 특별한 ‘바라다’ 구문에서의 ‘을/를 Vstem+ -기’의 생략도 다음과 같이 중동사 구문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일어날 수 없다.

- (36) 철수가 저녁마다 [매운탕]($*\emptyset \leftarrow$ 을 하기) 바람.
- (37) 철수가 극장에서 [영화]($*\emptyset \leftarrow$ 를 보기) 바람.

(34b)에서 보았듯이 생략된 ‘을 하기’의 보어 명사구에는 ‘Y의’가 올 수 없다. 주어는 ‘의’에 의해 관형사화 되어야만 명사구에 내포될 수 있는데, ‘하다’-명사구는 ‘의’ 관형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하다’-명사구에서는 주어가 명사화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다.⁴⁴⁾

43) 본고에서와 달리 ‘하기’ 생략과 ‘을/를 하기’ 생략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바라다’를 또 하나의 경동사(기능동사)로 설정해야 한다.

44) 이병규 2001에서 술어명사문(본고의 ‘하다’ 명사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에 주어 성분이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별개의 현상이지만, (34a,b)에 ‘바라다’의 주어(‘우리는’)가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X하다'를 다루었던 2장과 3장에서 부사절에서의 '하...' 생략 가능성을 'X하다' 구문 판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중이다' 앞에서의 '을/를 하는'의 생략 가능성과 '바라다' 앞에서의 '을/를 하기'의 생략 가능성을 'X를 하다' 구문의 판정 기준으로 심기로 한다. 단 '중이다'의 경우에는 진행상을 가지는 'X를 하다'만이 판정 대상이 되고, '바라다'의 경우에는 [행위]의 의미를 가지는 'X를 하다'만이 판정 대상이 된다.

그런데, (32), (36)에서 보았듯이 중동사 '하다'의 경우에는 '중이다' 앞에서 '을/를 하는'의 생략이 불가능하고, '바라다' 앞에서는 '을/를 하기'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타동경동사 '하다'와 타동중동사 '하다' 사이에 이렇게 행동이 다른 구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두 '하다' 구문을 구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이제 우리는 타동중동사 '하다' 구문과 타동경동사 '하다' 구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였으므로,⁴⁵⁾ '하다'-명사구인지 일반 명사구인지 판정된 명사구를 가지고 그것들의 내부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28)과 (29)를 다루면서 '*[Y의 X] 중이다'가 비문이 되는 것을 보았다. 흥미롭게도 '바라다' 구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대격 보어를 요구하는 '수리'와 치격 보어를 요구하는 '유학'을 예로 하여 그들이 만드는 '하다'-명사구의 내부 구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1) *우리는 희망자가 직접 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 바람.

2) *우리는 희망자가 직접 사무실에 [지원서 제출] 바람.

'우리는 [희망자의 사무실에의 지원서(의) 제출] 바람'에서는 '우리는'이 허용되는데, 이 때의 각괄호 안 부분은 (34)와 같은 '하다'-명사구가 아니라 일반 명사구를 가진 (35b)에서 그 일반 명사구에 붙을 '을'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45) 참고로 이 기준에 의해 국어에 행위명사 '무엇'은 존재하지 않고 상태어근 '무엇'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하느냐?'는 원칙대로 표기한다면 언제든지 '무엇 하느냐?'로 뛰어쓰야 하며, 그때의 '하다'는 중동사이다. 그러나 형용사적인 '무엇하다'는 붙여쓰는 것이 옳다.

1) a. 철수가 무엇을 하는 중이니?

b. *철수가 무엇 중이니?

2) 철수는 기만히 앉아만 있기만 좀 무엇, 하찮은 것을 이것저것 물어 보기 시작했다.

(38)은 (28)과 동일함.]

(38) a. 철수는 컴퓨터를 [수리] 중이다.

b. 철수는 [컴퓨터 수리] 중이다.

c. *철수는 [컴퓨터의 수리] 중이다.

(38') a. 5시까지 컴퓨터를 [수리] 바람.

b. 5시까지 [컴퓨터 수리] 바람.

c. *5시까지 [컴퓨터의 수리] 바람.

(39) a. 철수는 그때 서울에 [유학] 중이었다.

b. 철수는 그때 [서울 유학] 중이었다.

c. *철수는 그때 [서울에의 유학] 중이었다.

(40) a. 희망자는 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 바람.

b. 희망자는 사무실에 [지원서 제출] 바람.

c. *희망자는 사무실에 [지원서의 제출] 바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추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위의 모든 문장들은 접미경동사를 가진 'X하다'의 '하는'과 '하기'가 생략된 것이고, 타동경동사를 가진 'X를 하다'의 '를 하는'과 '를 하기'가 생략된 것이며, 경동사 '하다'를 가진 것이 아닌데 '를 하는'이나 '를 하기'가 생략되어서 비문이 된 것이다. 둘째, '하다'-명사구는 'Y X' 형이어야 한다. 그것은 'Y의 X'일 수 없다. 일반 명사구는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Y (의) X'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가 생략될 때 그 앞에 다른 조사가 있다면 같이 생략되어야 하므로 일반명사구는 'Y((에/와/...)의) X'이어야 한다. (이 뜻으로 'Y(...의) X'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하다'-명사구 'Y X'에서 'Y'가 다시 'Z의'를 내포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41) a. ??철수가 [당직실에의 상황 보고]를 하였다.

b. 철수가 [[한국어의 구개음화] 연구]를 하였다.

(41a)의 '당직실에의'는 '보고'의 보어이므로 '의'를 가져서는 안 되고, (41b)의 '한국어의'는 '연구'의 보어가 아니므로 '의'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다'-명사구는 'Y X'형이고 일반 명사구는 'Y(...의) X' 형이라는 사실에 대해 좀더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2) a. *철수는 수학의 공부를 하였다.
b. ??철수는 수학과 영어의 공부를 하였다.
c. ?철수는 수학의 공부와 연구를 하였다.
- (43) a. *우리는 교실의 청소를 하였다.
b. ??우리는 교실과 복도의 청소를 하였다.
c. ?우리는 교실의 청소와 소독을 하였다.
- (44) a. *나는 구개음화의 연구를 하였다.
b. ??나는 한국어 구개음화의 연구를 하였다.
c. ?나는 구개음화의 연구를 하고 싶었다.

위와 같은 예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Y의 X'는 '하다'-명사구로서는 비문법적이라는 것인데, 왜 위에서는 여러가지 'Y의 X'가 '하다'의 보어로서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는가? 나아가 위의 모든 문장은 '목적어 논항을 내포하는 사태명사구 + 하다'의 동일한 문형인데 왜 문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위의 모든 문제와 결여 있는 것은 명사구 내의 'Y의'의 '의'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본고의 가설은 보어가 비사태명사이면 동사 '하다'는 중동사로서 추리의미를 가져야 하고, 사태명사이면 그의 '하다'는 일반적으로 경동사로서 투영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만일 중동사 구문으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면 중동사로서 추리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다'가 중동사로 해석되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문법성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위에서 (a) 문장

들은 ‘하다’를 중동사(일반 동사)로 해석하게 하는 별다른 요인이 없어 경동사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그 보이는 일반 명사구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되고, (b)와 (c) 문장들은 ‘하다’의 중동사로의 해석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문법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셈이지만, 위 예문들에 대해서 사태명사의 목적어 논항이 확대되든지[(42b), (43b), (44b)], 사태명사가 확대되든지[(42c), (43c)], ‘하다’가 어떤 재구조화에 의해 확대되는 것[(44c)]이 ‘하다’를 중동사로 해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가정하면 위의 현상이 설명된다.

이제 또 다른 방면에서 ‘하다’-명사구와 일반 명사구의 차이를 보이기로 한다. 이 차이는 모든 사태명사구와 일반 명사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사태명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이는 종류의 것이다. 그런데 국어의 문장으로 서법어미의 지배를 받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문장’이고 후자는 주격조사 ‘이/가’, 대격조사 ‘을/를’도 나타나지 못하는, ‘骨格’만으로 된 문장으로 ‘한국, 8강(에) 진출’과 같은 것이다. 다음 (45)에 이 골격문과 ‘하다’-어근구를 가진 작은 동사구 V^h를 가진 VP, ‘하다’-명사구를 가진 VP, 일반 명사구의 예들을 비교해 보이기로 한다.

- (45) a. 골격문: 철수, 공부. 철수, 문법 공부.

b. '하다'-어근구를 가진 문장: 철수가 [공부]한다. 철수가 문법을 [공부]한다.

c. '하다'-명사구를 가진 문장: 철수가 [공부]를 한다. 철수가 [문법 공부]를 한다. 철수가 [*문법의 공부]를 한다.

d. 일반 명사구 +조사: [철수의 공부]에서, [철수의 문법(의) 공부]에서

앞 (21)의 표와 (31)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진 바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사태어근이나 사태명사구가 보어를 자신의 구 안에 포함하면서 확대된 모습

들을 보이기로 한다.

(46)

보어에 따른 분류	'하다'- 어근구	꼴격 구	'하다'-명사구	일반 명사구
상태어근	깨끗	깨끗.	-	*
상태명사	건강	건강.	-	건강(철수의 건강)
-에 관계명사	해당	학교(에) 해당.	-	*
	직면	직면.	-	죽음과의 직면
		-	-	도움(부모(의) 도움)
		-	-	자식(*의) 도움
-를 행위명사	오해	진심 오해.	*진심 오해	*진심의 오해
		원리 오해.	*원리 오해	원리의 오해
	설명	문법 설명.	문법 설명	문법(의) 설명
	걱정	걱정.	-	걱정(부모(의) 걱정)
		자식 걱정.	자식 걱정	자식(*의) 걱정
-로 행위명사	자처	애국자(로) 자처.	??애국자 자처	??애국자(로의) 자처(철수의 애국자(??로의) 자처)
	협상	상대와 협상.	-	상대와의 협상
-와 행위명사	비교	서양과 비교.	-	서양과의 비교
	도전	합격(에) 도전.	*합격 도전	합격(에의) 도전
-에 행위명사	효도	부모님께 효도.	*부모님 효도	부모님께의 효도
	유의	건강에 유의.	?건강 유의	건강에의 유의
	합격	서울대(에) 합격.	?서울대 합격	서울대(?에의) 합격
		고시(에) 합격.	고시 합격	고시(에의) 합격

위에서 상태어근/명사는 '하다'-어근구에 쓰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도움' 류의 예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위에 든 4 가지 구성 가운데서 '하다'-명사구가 가장 많은 제약 속에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약들을 자세히 설명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보어를 명사구 안에 포함하는 구의 확대를 체계적인 빙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상태어근, 상태명사, 관계

명사의 ‘하다’-명사구는 체계적인 빈칸이다. 또, ‘부모가 자식을 걱정한다’에서 ‘하다’-명사구로서의 ‘부모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하다’-명사구 ‘Y X’에서 ‘Y’는 ‘X’의 주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와 행위명사’가 ‘하다’-명사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명사가 어떤 경우에든지 조사 ‘와’를 반드시 실현시키므로 ‘하다’-명사구를 구성할 때도 ‘와’가 출현해야 하고 따라서 관형어 ‘Y와의’의 ‘와의’가 생략될 수 없는데, ‘하다’-명사구의 핵명사는 ‘의’ 관형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가 어휘의 개별적인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왜 ‘합격 도전을 하다’는 안 되고 ‘교시 합격을 하다’는 되는지, 그러면 서도 다시 그 목적어가 구체적인 ‘서울대 합격을 하다’는 부자연스러운지를 아직 설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반 명사구에서 ‘진심의 오해’는 불가능 하지만, ‘원리의 오해’는 가능하다는 것도 아직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일반 명사구의 ‘의’나 ‘에의’ 가운데 생략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개별 사태명사의 특징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러가지 ‘Y(...의) X’ 구성에 걸리는 제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행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46) 정도의 사례를 모아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우리는 3장에서 동일한 사태명사가 ‘하다’-어근구도 만들고 명사구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이 ‘어근구’와 V[^]라는 작은 동사구를 설정한 바 있다. 본 장에서 우리는 그 명사구가 구조적으로 ‘Y X’ 형의 ‘하다’-명사구와 ‘Y(...의) X’ 형의 일반-명사구로 구별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사태명사의 ‘하다’-명사구를 위해 또 하나의 새로운 명사구 범주를 설정하고, 또 그와 ‘하다’의 결합체를 위해 새로운 동사구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자료와 이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문제 검토를 행하지 못하였다. ‘하다’-명사구에서 ‘Y(...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점에서 ‘하다’-명사구는 골격문의 동사구와 모양이 같으니 ‘하다’-명사구는 골격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또, ‘되다’와 ‘시키다’, ‘이다’, 그리고 ‘계속하다’, ‘중단하다’의 보어 명사구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⁴⁶⁾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면서 ‘하다’-명사구를 위한 새로운 범주 설정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하다'-명사구의 구조는 'Y X'이고, 일반 명사구의 구조는 'Y(...의) X'라는 것을 말하는 데서 만족하고자 한다.

V. 맷음말

본고는 줄고 2001a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근구에 관한 2장과 3장은 줄고 2001a의 보완과 수정이 주된 내용이 되었다. 접미경동사 '하다'의 보어와 타동경동사 '하다'의 보어는 문법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고, 2001a에서 설정한 '어근구'에 대한 몇 연구자들의 이의에 대한 답으로서 다시 한번 어근구의 '어근적' 성격을 제시하고, 그 명명을 옹호하였다. 4장은 '하다'-명사구와 일반 명사구의 구조도 또한 구별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경동사 '하다' 구문과 중동사 '하다' 구문의 구별을 위한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태명사 '공부'가 만드는 3 가지 구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요약해 본다.

- a. '하다'-어근구: 공부, *문법 공부, *문법의 공부, *철수의 문법(의) 공부
- b. '하다'-명사구: 공부, 문법 공부, *문법의 공부, *철수의 문법(의) 공부
- c. 일반 명사구: 공부, 문법 공부, 문법의 공부, 철수의 문법(의) 공부

본고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미진하게 다루어진 것에 다음의 것들이 있다.

줄고 2001a에 이어 본고에서도 의미에 따라 사태명사를 행위명사, 작용명사, 관계명사, 상태명사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태명사의 구가 '하다'와 만드는 구성에는 통사론적의 변화의 폭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46) 나아가 한자어 '의'의 보어 명사구도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다. 예. [動]적, [民主]적, [국가]적, [질서 파괴]적, [사회] 기초 질서 파괴적, [음운론 및 통사론]적, [음운론과 통사론]적, [통사론의 인접 분야]적, [통사론에 인접한 분야]적. 조남호 1988, 줄고 1996 참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본고에서 지적되었다.

- a. 행위: 산책한다(동사 활용), 산책을 천천히 한다, 천천히 하는 산책
- b. 작용: 증발한다(동사 활용), 증발을 빨리 한다, *빨리 하는 증발
- c. 관계: 해당한다(동사 활용), *해당을 ... 한다, *하는 해당
- d. 상태: 깨끗하다(형용사 활용), *깨끗을 ... 하다, *한 깨끗

줄고 2001a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부사어를 용납하지 않는 c, d의 'X를 하다'는 대격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인 차이가 혹시 암시할지도 모르는, '를'과 주제화, '를'과 대격 구성에 관한 어떤 진실이 더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사태 명사가 자신의 논항들을 자신의 일반 명사구 혹은 '하다'-명사구 안에 내포하는 데 걸리는 제약에는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부분과 어휘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전혀 다루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사태명사를 핵으로 하는 문장적 형식이 일반 명사구가 될 때는 주어에서 목적어까지 모든 사태 명사의 논항들이 '의'에 의해 관형어화되는데, 왜 '하다'-명사구가 만들어질 때에는 주어가 내포될 수 없으며 다른 논항들도 '의' 없이만 내포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 질문에의 답이 찾아지기를 기대해 본다.⁴⁷⁾

47) 본 논문의 인쇄 단계에서, 국어 명사구 구조에서 관형어 'Y의'는 지정어로 해석되고, 이 지정어를 가지도록까지 확대되지 못한 구성을 중간 범주 N'(NP와 N⁰의 중간투사로서의 N')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홍빈 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구조에 대하여,『冠岳語文研究』24, 金寅均 2003, 국어의 명사 연결 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그러면 본고의 일반 명사구는 NP가 되고, '하다'-명사구는 N', '하다'-어근구는 RP가 된다.

참 고 문 헌

- 高永根 1980, 국어 進行相 形태의 處所論의 해석, 《語學研究》 1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金敏洙 1984, 國語政策論(再版), 塔出版社.
- 김창섭 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鎮,先生回甲紀念論叢), 民音社.
- 김창섭 1996a, 국어 파생어의 통사론적 문제들, 李基文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김창섭 1996b,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國語學叢書 21, 태학사.
- 김창섭 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 통사론적 연구,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김창섭 2001a,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語學研究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창섭 2001b,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國語學 37, 國語學會.
- 남기심 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계명대 출판부. [남기심 1996에 재수록].
- 남기심 1996, 국어 문법의 텁구 I, 태학사.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이병규 2001, 국어 술어명사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李翊燮 1968, 漢字語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 博士 頌壽紀念論叢, 心岳 李崇寧 博士 頌壽紀念事業 委員會.
- 李翊燮 1975, 國語 造語論의 몇 問題, 東洋學 5,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 李翊燮 2003 예정,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李賢熙 1986,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흐-의 性格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텁 출판사.
- 李賢熙 1994, 中世國語 構文 研究, 新丘 文化社.
- 이호승 2003, 국어 복합 서술어 연구: [명사+조사+동사] 구성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홍빈 1979, 用言의 語根分離 現象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 임홍빈 1989, 統辭的 派生에 대하여, 語學研究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임홍빈 1998에 재수록].
- 임홍빈 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임홍빈 2000, 가변 중간 투사론—표면구조 통사론을 위한 제언, 21세기 국어학
의 과제 (솔미[松山] 정광 선생 학갑기념논문집), 도서출판 월인.
- 조남호 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國語研究 85, 국어연구회.
- 朝鮮語學會 1933, 한글 마춤법 통일안. [金敏洙 1984에 수록].
- 한동완 1999, '-고 았-' 구성의 重義性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5, 한국어 의미
학회.
- 한동완 2000, '어 았-'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박이정.
- 허철구 1998, 國語의 合成動詞 形成과 語基分離,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홍기선 1994, 한국어 대격의 의미, 언어 19-1.
- 홍재성 1993, 약속의 문법: 서술명사의 어휘 통사적 기술과 사전, 東方學志 81,
연세대 국학연구원.
- Hong Ki-Sun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